

史上名人의 二十歲；

栗谷先生의 退佛還儒[中]

崔益翰

佛敎의 極致는 寂滅이오. 儒道의 極致는 治平이며 前者는 超世의이오. 後者는 現實的이다. 倫理를 實踐하고 治平을 成해야 儒敎理想國을 建設하려고할 將來 哲人의 政治家인 栗谷先生으로서 어찌 그의 足跡을 空寂한 佛門에 기리 머물고 있을 것이라. 그의 退佛還儒은 宿命的必然이다. 하물며 儒를 높이고 佛을 排斥하든 當時의 社會的 大氣가 先生의 個人的 心機의 轉換을 絶對적으로 命令함에 또한 어찌 하랴.

그러나 先生은 早年 儒에서 佛로 佛에서 儒로 往復한데서 그의 儒佛에 對한 批判 能力은 훨씬 發展되었다. 다시 말하면 先生의 哲學的 世界觀은 當時 文化의 兩大體系인 儒佛을 들어 對照比較의 眼光에 너트던 것만큼 儒나 佛이나의 溫室에서 그냥 자라난 俗儒俗僧의 平凡한 레벨을 멀리 지났던 것이다. 先生의 學이 固執性을 벗고 豁達한 風味를 띠며 退嬰性을 버리고 進取進進한 氣分을 나타내게 된 것은 如上한 經歷이 有力한 契機를 提供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先生은 본래 儒家子弟로서 어찌 하야 禪佛에 一時從事케 되었던가. 여기엔 그의 家庭的 境遇가 重要한 原因이었다.

先生은 絶勝으로 일흠이 높은 江陵鏡浦臺의 附近 北坪村外家에서 誕生하여 六歲에 母夫人을 딸아 漢城進坊 京第로 왔었다. 母夫人은 세상이 아는 바와 같이 才德이 높고 詩文書畫에 能하여 朝鮮女流에 뛰어난 師任堂 申氏였다. 先生의 偉大도 母夫人의 感化에 힘입은 배 적지 안 했을 것이다.

그러나 先生은 겨우 十六歲에 이르러 母喪을 당하였다. 母子의 情이야 누가 泛然할까마는 聖子를 둔 申夫人과 聖母를 모신 先生이라 英明하기 生知에 가까워 十餘歲에 文藝가 이미 찬란한 愛子의 大成을 미처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간 것은 九□에서도 눈을 감을 수 없는 일이 아닌가! 慈母인 同時에 賢明하신 先天的 師表를 一朝에 여윌단 것은 天性이 본대 至孝한 어린

先生으로서 또한 어찌 견딜 것이라—先生의 情緒는 이에 極度로□해졌다.

어찌 이 뿐이 었을가. 그의 庶母는 술을 조하하고 性質이 悖惡한데다가 그의 아버지는 또한 愛妾에 誘惑되어 先生에 對한 薄待는 거의 말할 수 없었다. 先生의 倫理的 生活은 實로 窮境에 빠졌다. 아버지를 怨□하고 聖母를 追憶하는 어린 先生의 눈물은 드디어 死生超脫을 云云한 佛家の 道說에 自然히 귀를 기울리지 아니치 못하였다. 이것이 下記栗谷行狀에 이른바 一節이다.

『일즉이 所恃(謂母)를 일코 밤낮으로 號泣하다가 어느 날 偶然히 釋氏의 書를 閱覽하여 깊이 死生之說에 느꼈고 또 그學의 □□淸淨한것을 조하하여 人事를 謝絶할뜻으로 十九歲에 金剛山에 들어 갔다……』

그러나 先生文集中 年譜, 行狀等에는 그의 學徒가 先生의 入佛事行을 될 수 잇는대로 省畧하여 世儒의 誹謗을 忌避하려 하였으나, 事實上 先生의 佛書耽讀과 入佛志願은 十九歲前 卽 喪母直後부터 잇었다고 想定되며 또 金剛入居時에는 아주 僧侶의 모양을 차려 削髮하였던이다. 『涪溪記聞』에 依하면 先生의 禪號는 義庵이 었으며, 二十歲에 머리털을 길르고 비로소 科擧에 □했다 한다. 그래서 그 後 生員이 되어 太學에 가서 謁聖 卽 孔子廟에 謁見하려 하니 掌議閔福은 先生을 沙門(=僧)이라 하여 謁□를 拒絶했다 한다.